

기획특집

기획특집 ① 미디어 속 성차별 및 혐오표현

김은진 |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기획특집 ② 부산지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홍석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Busan Gender Equality & Famil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Gender and Media



BUSAN GENDER EQUALITY & FAMIL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여성우리 2025. 06. Vol.73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통권 제72호 비매품
발행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Tel. 051)330-3400 Fax. 051)363-3759
<http://www.bgli.re.kr>
발행인 윤지영
편집위원 배정애, 양혜경, 유순희, 이국환,
김보름, 한혜림
편집자 정다운, 김민정
디자인/인쇄 글로브임팩트 Tel. 051-710-4008

본 정책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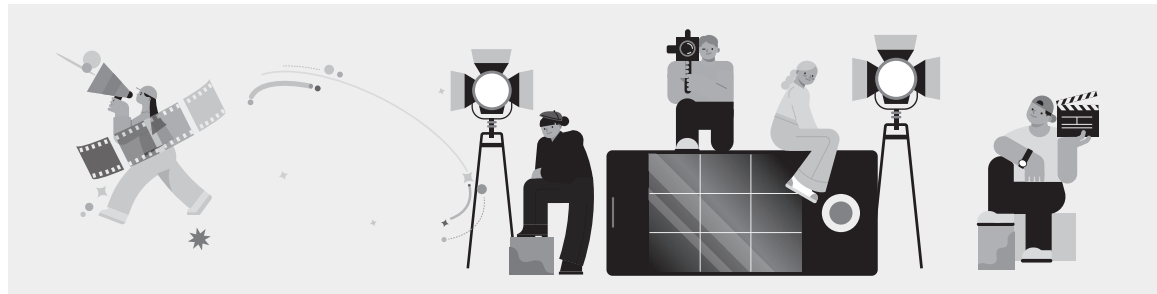
CONTENTS



04	<u>여우단상</u>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힘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9	<u>현장목소리 ④</u>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속 성별 고정관념,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 민소영 연산초등학교 교사
06	<u>기획특집 ①</u> 미디어 속 성차별 및 혐오표현 김은진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33	<u>여우문화 리뷰</u> <킬빌>의 그림자 안온 '일인칭 가난' 저자
11	<u>기획특집 ②</u> 부산지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홍석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36	<u>여우's 일상</u> 책방 카프카의 밤 계선이 카프카의 밤 대표
16	<u>이슈</u> '흑인'과 '공주' 사이의 거리 김아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39	<u>부산 마을 탐방기</u> 우리마을 사회적 연결센터 느티나무도서관 김혜정 전)반송느티나무도서관장
19	<u>현장목소리 ①</u> 미디어 속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서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42	<u>부산의 herstory</u> 부산의 일상 속 어르신들에 반하다 조서연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22	<u>현장목소리 ②</u> 챗GPT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김지효 '인생샷 뒤에 여자들' 저자	46	<u>News</u>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활동소식
26	<u>현장목소리 ③</u> 성평등을 위한 언론 현장의 노력 김효정 부산일보 젠더 데스크	51	<u>News</u> 정책 Check : 국내 정책 동향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힘

김수아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근의 미디어 소비는 파편화되어 있어, 다수의 대중이 함께 보는 미디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일방향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향과 이념에 맞는 미디어를 찾아 나서는 현상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행태는 오히려 미디어 다양성의 차원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기도 하다.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 소비는 사실상 자신의 선택이라는 착각 속에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밀하게 조율된 미디어 상품들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가깝기도 하다. 무엇보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말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다양한 주장과 재현들,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넘치는 유튜브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다.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은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미디어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시성과 숫자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재현은 이제까지

지배 구조 내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목소리들이 사회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막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세계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야만 이러한 수의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 유통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는 주목 경제를 중심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조차, 이러한 조회 수의 논리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고 또 뉴스 수용자들을 알고리즘 소비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에서는 기존의 저널리즘 톤을 유지하다가도 유튜브나 SNS 제목에서는 거리낌 없이 유행하는 밈을 가볍게 사용

하거나 혐오 차별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 힐러리 쟁크스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¹⁾ 우리가 그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우리의 자유를 누린 결과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플랫폼의 배열은 플랫폼의 권력의 구조 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또 재구성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 그리고 이를 확산하고 재생산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권력에 대한 시민적 개입에 대한 고민이 다양성 재현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어떤 게임에 멋진 여성 캐릭터, 성소수자 캐릭터가 등장했으니 진보하였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러한 다양성 재현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특정한 집단이 과소 재현되는 데 영향을 미쳐왔는가? 현재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성,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의 문화적, 정치적 의미와 위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미디어 소비자가 만나는 알고리즘이 다양성의 재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세계의 다양성을 상상하고 이를 사회적 현실의 변화와 연결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세계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플랫폼과 사회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1) Janks, H(2010). Literacy and Power. Routledge;
장은영 외 역(2019). 『리터러시와 권력』. 사회평론아카데미.



미디어 속 성차별 및 혐오표현

미디어 속 성차별 및 혐오 표현의 사례 및 현상 분석

김은진 |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현재 다양한 미디어 속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그리고 이것은 미디어 밖 현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미디어 속 여성은 늘 사물화, 물신화 되어왔는데, 이에 '상품 물신성(commodity fetishism)', '성 상품화(Sex-Commercialization)', '성적 대상화(혹은 성적 객체화, sexual objectification)'가 결합된다. '상품 물신성'은 사회적 관계가 시장에서 교환되는 돈과 상품에 의해 결정되고 결국 상품이 물신숭배 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이 과정에서 성이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가 되는데, 이를 '성 상품화'라고 한다. 이는 직접적 성매매뿐 아니라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에서 여성들의 벗은 몸 등을 이용해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성 상품화가 지속되면 결국 '성적 대상화', 즉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을 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대상화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며, 대상화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발언할 능력이 결여된 존재로 취급된다.

▼사진 출처: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MBC 뉴스>에 대한 트위터¹⁾



1) 여성 관점의 기사나 글의 경우 온라인 공격의 위험이 있고, 개인 X(구 트위터) 내용이므로 X 출처는 밝히지 않는다.

수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물건을 파는 것이 목표인 광고는 물론이고,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심지어 시사 토론, 사회고발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여성 차별, 대상화, 성 상품화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²⁾ 심지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콘텐츠로 인식되는 뉴스에서도 예쁘고 완벽하게 세팅한 여성들만 등장한다. 최근 뉴스에 안경 낀 여성 기자, 임신 중인 기자가 등장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는 점은, 뉴스 속에 등장한 여성이 얼마나 특정한 모습만 보여주었는지를 드러낸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미디어의 여성 차별과 혐오 문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게임은 어린이부터 전 연령대가 즐기고 깊이 빠져 '몰입(flow)'하는 장르 특성상 '중독' 문제뿐 아니라 콘텐츠의 영향도 다른 미디어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게임 콘텐츠 내 여성 상품화나 혐오 관련 문제로는 최근 <마비노기> 소녀(10~17세 설정) 캐릭터 팬티 노출 논란³⁾, <서든 어택> 여성 캐릭터 음란한 포즈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심한 것으로는 2010년 무렵 일본의 강간게임 <레이프 레이>⁴⁾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유포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게임 채팅을 통해 이용자가 성적 언어 혹은 사진 등을 보내는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빈번한데, 특히 <롤> 게임에 흔해 '롤매음'으로도 불린다. 이는 2022년 기준 신고만 1만 563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제페토> (이용자 70%가 미성년자이고, 그중 7~12세 이용자가 50.3%, 2021년 닐슨코리아) 등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게임에서 아동 그루밍 성범죄가 빈번하다.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여성이 게임 이용자의 반을 차지함에도 게임 내외의 성 상품화와 성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6월 4일 이재명 정부는 20~30대 남성들의 오랜 요구에 맞춰 게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앞으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르노그래피(소위 성인물)는 늘 여성에 대한 상품화와 혐오가 노골적인 콘텐츠다. 1997년 청소년 성범죄 영상 유포 이후 '국산 아동'은 '몰카(불법촬영물)'를 의미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 디지털 시대가 되자 사진, 영상의 복제, 유포가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소라넷', 'N번방', '박사방', '목사방'으로 갈수록 가해자, 피해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피해자 수는 늘어났으며 범죄는 잔인해졌다. 특히 '웰컴 투비디오'는 세계 최대 아동(12세 미만) 성착취 사이트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223명의 한국인이 검거되었으며, 운영자 처벌도 매우 미약했다.⁵⁾

2) 6월 3일, 지방파 3사 21대 대선 선거방송 해설 코너에 여성 출연진은 약 26%뿐으로, MBC는 '전원 남성', KBS는 여성 2명뿐이고, SBS만 유일하게 성비 균형을 맞췄다.

3) 여성 이용자들의 항의로 게임사는 소녀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지 않게 수정했으나, 남성 이용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고 게임사는 즉시 원래대로 다시 수정했다.

4) 여성 캐릭터들(여학생, 여동생, 어머니까지)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낙태시키며 피해자들의 괴로워하는 반응을 '즐기는' 게임이다.

5) 32개국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검거했는데,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72%였다. 19세에 사이트를 만들고 22세에 체포된 운영자 손정우는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 동영상 유포해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났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외국에서 동영상을 다운 받은 이들의 형량은 5~15년으로 훨씬 무거웠다.

디지털 범죄는 소수 전문가나 특정인이 만들어 유통되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다수 수용자가 만들고 유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단톡방, 딥페이크 사건은 전국의 여러 중고등, 대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공격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니 애미', '느금마(느그 엄마, 네 엄마)' 등의 패드립을 초등학생 때부터 사용하고, 중고생이나 성인이 되면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희롱이나 딥페이크 범죄로 이어진다. 이들은 모두 '섹스팅(sex ring, 특정 집단이 원(ring)처럼 둘러앉아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넘나들며 저지르는 성범죄)'의 일종이며, 학생들은 이를 다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죄의식도 없고 근절하기 어렵다.

범죄 발생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2차 가해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을 드는 사법적 처벌과 사회적 분위기다. 바로 2025년 6월 5일에도 대법원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이자 성착취물을 유통해 35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양진호의 범죄에 5년형을 확정했으나, 수익 중 한 푼도 몰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⁶⁾ 이런 성착취 수익 창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⁷⁾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댓글 공간은 혐오, 특히 여성 혐오의 공간으로 변한지 오래다. 양혜승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뉴스 댓글 중 여성혐오 댓글이 2,303개로 이주민 혐오(871개), 노인 혐오 댓글(184개)에 비해 압도적이었다.⁸⁾ 혐오 댓글이 심각한 이유는 첫째 소수가 댓글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댓글 이용자는 방문자의 0.003%에 불과하며, 2022년 기준 지난 3년간 남성은 여성보다 댓글을 세 배나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버 데이터랩). 둘째, 기사를 읽지 않고 댓글을 다는 이들이 너무 많다. <NRK베타>는 기사 내용에 관한 퀴즈 풀어야 댓글 쓸 수 있는 실험을 9개월간 진행했는데, 맞힌 이용자는 1/3에 그쳤다. 즉 악플러들은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받아 들이는 커녕 읽어볼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혐오 댓글이 보편화되었다.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열흘간 관련 기사 댓글 123만여 개 중 혐오 댓글이 58.27%였다.⁹⁾

6) 2018년 보도를 통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가 한통속으로 가담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5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조직적 범죄다. 양진호는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동시에,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삭제료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착취와 고통을 당한 것이다.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들이 목숨을 끊자 영상 제목에 '유작'을 붙여 '유작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2019년 검찰에 따르면 그가 관여한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은 약 388만 건에 달한다.

7) 신다인 (2025.06.05).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5년형 확정...350억 범죄수익 한 푼도 안 뺏겨. 여성신문

8) 양혜승(2022). 여성, 이주민, 노인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네이버 범죄뉴스를 맥락으로. 한국방송학보, 36(3), 5-45.

9) 국민일보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팀에 의뢰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포털 네이버 정치·사회 섹션 기사(이하 네이버 기사)에 달린 1억 2114만여 개의 댓글과 '이태원 참사' 당일(10월 29일)부터 열흘 뒤인 11월 9일까지 '이태원' 내용이 들어간 기사(이태원 참사 기사)에 달린 댓글 123만여 개를 분석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6955>

이러한 조사와 실험을 통해 혐오 댓글 문제는 설득과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해외 언론사들은 기사를 읽어야 댓글을 쓰게 하도록 장치를 만들거나, 댓글창을 폐지하고 기사와 1:1로 소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예뉴스, 스포츠 뉴스 등은 이미 댓글난을 폐지했으나, 사고나 범죄 기사 등에도 어김없이 무관한 혐오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6월 5일 카이스트 폭발사고 기사 댓글 사례를 보면, 댓글 작성자 성별 80% 이상이 남성이고, 댓글 20% 정도는 이미 운영기준 미준수 등으로 삭제된 상태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인지 여성 혐오 댓글이 다수인데 다양한 방식의 혐오가 드러나 있다.



▲ 출처: 이정수 (2025.06.05). 카이스트 실험실서 폭발·화재... 20대 여성 중상. 서울신문. 기사 댓글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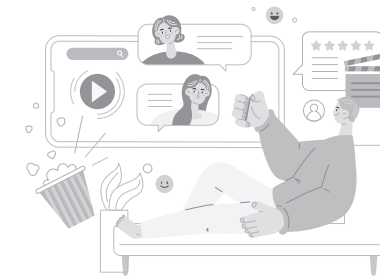
무심코 내뱉는 혐오발언은 미세차별(Microaggression,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만연한 차별)로 그 하나만 살펴보면 심각하지 않게 보이고 따라서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소수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혐오는 지역, 세대, 장애인, 외국인 혐오와 항상 같이 간다. 따라서 일베, 디씨, 펌코 등을 통한 지금 젊은 세대의 혐오는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혐오를 넘어 극우 파시즘의 준동으로 분석된다.¹⁰⁾ '상상된 착취'에 기반에 자신의 몫을 빼앗아 갔다고 여겨지는 타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연결되는 것이다.¹¹⁾

10) 강한들 (2025.05.07). "일베 폐쇄는 '극우 파시즘' 뿌리 뽑는 길". 경향신문, 이병권 (2025.02.19). [대한민국 파시즘 해부④] 이대남과 혐종 의식의 뿌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연론 민들레.

11) 최원형 (2019.10.19). '일베'는 왜 약자를 괴롭힐까?, 한겨레.

또한 댄 올베우스(Dan Olweus)의 가해 원형에 따르면 집단적 폭력과 괴롭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아니라 방관자들의 역할이다. 암묵적인 방관이나 지지가 가해자의 권력 기반이며, 그 권력을 무너뜨릴 힘도 방관하는 다수에게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속 혐오와 괴롭힘은 이 다수의 숫자가 무한히 확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혐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더 이상 멋진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혐오는 결국 장애인, 노인, 지역, 계급, 학력 등 모든 부분의 혐오로 퍼져나간다.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의 글 '처음 그들이 왔을 때'는 나치가 특정 집단을 하나 둘 덮쳤을 때 본인은 해당되지 않아 침묵했던 이가 결국 "그들(나치)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읊조리는 파국적 결말을 경고한다.

혐오발언과 가짜 뉴스(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허위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은 잘못된 것을 강하게 규정하고 배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적, 자율적 규제 외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저서 <혐오 발언>에서 제안한 '대항발언(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저항적 전유나 재수행, 정치적 실천으로서 맞받아치기, 전복하기, 해체하기 등)'이라는 맞대응도 중요한 실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홍석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가 인터넷, TV, 신문 등에서 접한 다수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능력이란 올바른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창조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디지털이란 단어를 추가 하면 인터넷, SNS 등의 디지털 영역에서 담은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설명이다. AI를 앞세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기도 버거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이제 21세기 인류의 필수역량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미디어는 TV, 신문, 영화, 광고,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문자와 영상, 음성 등의 형태로 창조적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문가들만의 도구 또는 특정 전문 분야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 이후 다양한 신기술과 콘텐츠를 담은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의 발전으로 미디어는 이제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수많은 상대방과 공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분석·평가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하는 필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시작된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시민을 위해 개별화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작은 1970년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의 수용자교육과 1980년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위성방송 등장을 비롯한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청자 권리'가 강조되면서 미디어 교육은 비로소 공적영역으로 들어서는 계기를 맞았다. 2002년,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미디어엑트는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공 미디어센터로 향후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과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라는 미디어센터 설립 모델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¹⁾ 그리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지원과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정책 마련은 2001년 방송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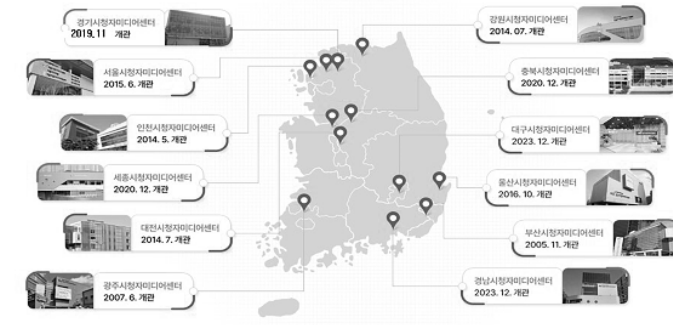
1)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리 27호 '이슈리포트'> 미디어교육 10년의 발자취: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변화했고 어디로 가는가?, 김광재 글 참조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일반대중)는 방송법에서 시청자라 표현된다. 시청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스스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는 자신이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에게 방송 송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절차를 거쳐 방송 편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를 2001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의하면 KBS는 매월 100분 이상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당시 방송위원회(現 방송통신위원회)²⁾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2005년 최초로 부산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2007년 광주, 2014년 강원, 대전, 인천에 센터를 개관하였다. 이후 201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울, 울산, 경남, 대구 등 전국 12개 시도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확대, 전국민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딥페이크 예방, 허위 정보 판별 등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부터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을 돕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각·청각 장애,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최우선으로 차별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간 2,700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 지역 대학, 지자체, 유관기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외 청소년 한국국제학교까지 다양한 협업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연간 평균 12만 명 이상 20년 동안 총 209만 명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콘텐츠 제작을 원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문 시설·장비를 무료로 지원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KBS 본사와 KBS 부산방송총국에서에서 편성하는 '열린채널'을 비롯해 부산MBC의 '라디오 시민세상'과 '우리동네 토크', KNN의 '시청자TV', TBN 부산교통방송의 '시민리포트' 등 연간 590편 3,663분('25년 12월 기준)을 제작·지원하고 연제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로 구성된 86명의 미디어 교육 강사와 시청자 참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100여 명에 이르는 시민 제작단과 함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 지역의 대표적 미디어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출범)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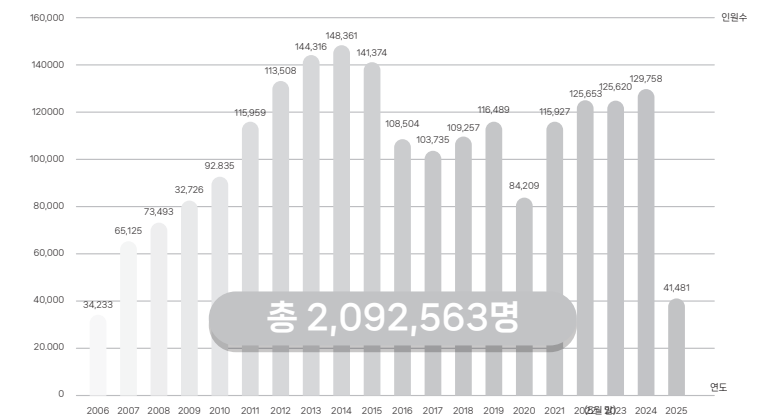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 출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소개자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누적집계 (25.5월말 기준)

(출처 : 시청자미디어센터 백서 및 운영실적 자료 종합)



▲ 출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소개자료

부산시 미디어리터러시 조례와 유관기관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했던 시절,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온라인 기반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표 1 참조) 부산은 2021년 1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도로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부터 교안 연구·개발·평가, 자원 조달, 소외계층 지원, 연수 등 학교 현장에서 교사부터 학생까지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언론진흥재단 등 지역의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예방,

허위 정보 판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자극적인 미디어 정보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만큼 유아부터 부산 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 특강을 확대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부산시는 2021년 6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부산 시민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23년 개정으로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으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시청자미디어 센터에게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사업을 2022년부터 위탁해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 올바른 미디어 정보 활용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키오스크, 온라인 민원 처리, 스마트폰 활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쉼센터를 통한 디지털 과몰입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학부모·교사 연수, 부산 지역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을 통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생성형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전문 기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조례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일자	비고
1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0. 5. 19.	일부개정
2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0. 7. 15.	제정
3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2. 4. 14.	제정
4	경상남도 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2. 4. 17.	제정
5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1. 12. 30.	제정
6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	타법개정
7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3. 8. 1.	타법개정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 교육지원 조례	2023. 3. 30.	제정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4. 6. 28.	일부개정
10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1. 6. 30.	제정
11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3. 10. 11.	일부개정
1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3. 10. 11.	일부개정
13	서울특별시 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타법개정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3. 11. 3.	제정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4. 7. 18.	제정
1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2. 2. 21.	제정
17	울산광역시 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3. 3. 9.	제정
18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7.	제정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2024. 5. 9.	제정

연번	지방자치단체명	조례명	일자	비고
20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2021. 2. 18.	제정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0.	타법개정
22	충청남도 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0.	일부개정
23	충청북도 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2021. 12. 17.	제정
2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지원 조례	2023. 10. 12.	제정
2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1. 5. 20.	일부개정

(출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024년 기준)

결론

부산은 시, 공공기관, 교육 전문 기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는 이제 모든 삶에 거스를 수 없는 필수 매개체이다. 이용자는 이제 미디어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 사회 소통 과정이 모두 미디어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해 분석, 비판적 사고, 평가, 성찰을 통해 스스로 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만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미디어기기 이용이 어려운 시니어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도 반드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디어는 공공재이며 정부의 정책은 미디어를 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오염된 학교와 가족의 현장은 이미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반복적 이용으로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폐해는 학교도 가족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과의 대화 감소와 소통 능력의 상실,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찾아보는 확증편향으로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혐오의 증가, 가벼운 문제도 생성형 AI 등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문제해결 능력 부족 등 결국 이들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대상이 오히려 미디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부터 매우 시급하다.

'흑인'과 '공주' 사이의 거리 디즈니 실사화 영화 논란 속 혐오 정동

김아란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디즈니의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실사 영화 <인어공주>(2023)와 <백설공주>(2025)는 기획 단계부터 주인공의 인종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작 훼손'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거세졌고, 동시에 '공주'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향한 혐오적 밈과 조롱은 극단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같은 반응 속에서 일부는 디즈니의 캐스팅 선택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 대한 충실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어공주>와 <백설공주> 실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단순히 팬덤의 실망이나 익숙함의 붕괴로 이해하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이다.

사실 실사화 영화에서 배역의 인종 변경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빈번히 일어난 것은 유색 인종 캐릭터를 백인 배우가 연기하는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이었다.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일본인 지주 역할을 백인 배우 미키 루니가 맡았던 사례, 2013년 <론 레인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역할을 조니 뎀이 연기한 사례, 2016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티베트 승려를 백인 여성 배우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사례까지, 수많은 예시가 있다.

그러나 최근 백인 캐릭터를 흑인 배우가 연기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일부는 이것을 '블랙워싱(Blackwashing)'이라고 부르며 동일한 문제로 간주한다. 하지만 유색 인종 캐릭터를 백인이 연기하는 것과, 백인 캐릭터를 유색 인종이 연기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인종 간 권력관계가 시각문화 속에서 어떻게 반복 재현되고 유지되는지를 간과한 주장이다.

화이트워싱은 본질적으로 백인이 모든 역할을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작동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백인은 특정 인종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종립적인 존재, 혹은 보편적 인간의 얼굴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기에 백인은 인종·계급·국적·문화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인물도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흑인·라틴계·아시아계 배우가 백인 캐릭터의 역할을 맡는 경우는 그 자체로 낯선 선택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비백인은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역할에 '속박되어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흑인은 노예, 범죄자, 노동자, 혹은 희생자일 수는 있지만, 왕족이나 천재, 지도자 같은 상징적 권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규범이 작동한다.

예컨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2009)에서 흑인 공주 티아나는 큰 논란 없이 수용되었다. 그녀는 요리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평범한 하층계급의 흑인 소녀였고, 꿈은 레스토랑 개업이라는 '흑인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역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어공주>에서 흑인이 바다 왕의 자녀로, <백설공주>에서 라틴계 여성이 왕국의 유일한 공주로 등장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종별 역할 고정관념에 반하는 설정이다. 흑인이나 라틴계가 '왕족', '공주', '이상적 여성'의 위치에 오르는 순간, 거부 반응이 발생한다. 이는 곧 유색 인종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정된 '역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자, 백인 보편성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종별 역할 고정관념은 인종차별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다. 인종 차별은 해당 인종에게 특수한 역할(노예, 하층 노동자 등)만을 부여하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종과 '역할'의 결합은 해당 인종에 대한 부정적 정동을 구조화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인종별 역할 고정관념은 역사적으로 쌓여온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의 감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흑인이 공주의 역할을 맡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이질감'에 뿌리를 제공한다.

디즈니 실사화 영화에 대한 비판은 흑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정동과 '공주'라는 개념 자체가 백인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점의 교차 속에서 만들어진다. 공주란 하얗고 말갛고 아름다운 백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든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디즈니는 수십 년간 백인 여성의 얼굴로 '이상적인 공주'를 반복 재현해 왔다. 이 반복은 공주라는 이미지 자체가 인종화된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다. 흑인 아리엘이나 라틴계 백설공주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다른 인종'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규정된 '공주'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인성은 공주 서사에 '붙을 수 없는' 요소로 간주된다. 흑인의 몸에 '공주의 언어'와 '공주의 이미지'가 부착되었을 때, 관객은 부조화를 느끼고, 이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인종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공주라는 집단적 환상—즉, 이상적 백인 공동체—을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사라 아메드는 '혐오'는 특정 대상과 거리를 만들며, 그 거리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흑인 공주를 비난함

으로써, 다시금 '아름답고 하얀 공주'라는 이미지를 소환하고, 그 이미지에 감정적으로 귀속되는 백인 중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 감정 구조는 단지 디즈니 팬덤의 반응이 아니라, 백인 중심 미적 규범과 시각문화의 깊은 관성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 낯섦이 너무도 쉽게 '거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공주 이미지에 익숙해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즉각적인 반발이 이루어지고, 그 반발을 통해 익숙한 백인 공주 이미지는 다시 재생산된다. 공주는 흑인의 얼굴을 할 수 없다는 감정적 판단이, 그 반복적 재현 속에서 사실처럼 굳어진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혐오와 교차하며 더욱 증폭된다. 디즈니는 공주의 인종뿐만 아니라, 전통적 여성상 자체를 바꾸고자 한다. 더 이상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사를 주도하는 주체적 여성으로 공주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흑인'과 '여성'이라는 두 겹의 정체성에 겹겹이 기대어진 고정관념을 자극한다. '흑인×여성'은 전통적인 공주의 이미지—아름답고, 순결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그 평가 속에서 인종 차별과 성차별이 겹쳐 작동한다. 혐오의 교차성으로 인해 흑인 공주는 '흑인×신(<브루스 올마이티>)', '흑인×공작(<브리저튼>)'보다 더 강한 반발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흑인 공주에 대한 혐오는 단순히 새로운 얼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얼굴에만 공주라는 이름과 역할을 붙여왔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흑인이 공주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불편한가? 그 불편함이 말해주는 것은, 단지 동화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얼굴에만 아름다움과 권위를 허락해 왔는가에 대한 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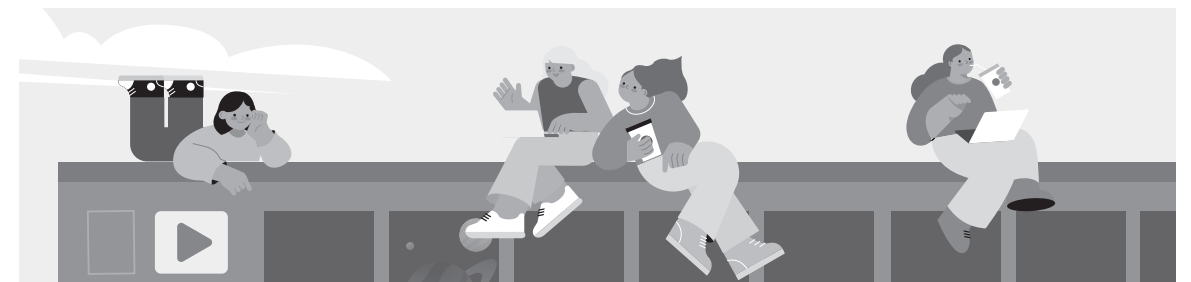
<백설공주 캐스팅 배우 '레이첼 지글러'와 원작 백설공주>



사진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309411591040>

미디어 속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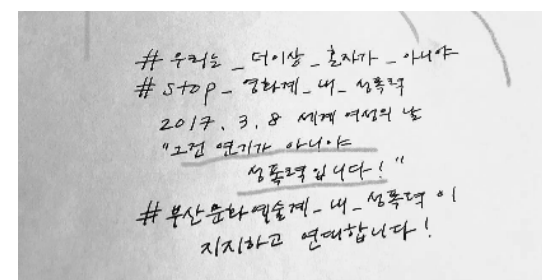
송진희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



1. 영화계 미투 운동과 백델 테스트

2018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은 문화 예술계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할리우드의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에 대한 성폭력 고발은 영화 산업 전반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2016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18년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연극계, 미술계, 무용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필자도 당시 부산 문화 예술계의 반(反)성폭력 활동가로서, 영화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출처: 집필자 제공



미투 운동은 성폭력 고발을 넘어, 예술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구조적 성차별을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영화 <우먼 인 할리우드>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이면에서 여성 영화인들이 마주한 구조적 성차별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고, 일할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조명하며, 영화 산업의 시스템이 성별에 따라 얼마나 불균형하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배우이자 활동가인 지나 데이비스(Geena Davis)는 자신이 설립한 '성평등 미디어 연구소'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 및 TV 프로그램 속 여성 캐릭터의 비율, 대사량, 직업 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왔다.

이렇게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영화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백델 테스트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백델 테스트는 미국 만화가 앨리스 백델이 1985년 자신의 만화 <Dykes to Watch Out For>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영화나 콘텐츠 속 여성 재현의 문제를 간단한 세 가지 기준으로 점검한다. 첫째,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 등장할 것, 둘째,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셋째, 그대화가 남성과 관련되지 않을 것. 만화 속 캐릭터들은 이 기준을 적용해 영화를 고르려

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는 영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단순한 테스트는 많은 대중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주체적인 서사를 가진 존재로 등장하지 않으며, 영화의 장식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나아가 미디어에서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콘텐츠 속 성별 재현의 왜곡을 드러낸다. 백델 테스트를 통해 드러난 미디어 속 성차별 현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이후 영화, TV,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성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백델 테스트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감독조합이 '백델 데이'를 기획하고 한국 영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백델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준을 통과한 작품을 '백델 초이스'로 선정해 공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형 백델 테스트는 단순히 원래의 질문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의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기존 백델 테스트를 보완해 제작 환경, 캐릭터 재현 방식,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여부까지 고려하는 확장형 테스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 성차별적 미디어의 재현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들

미디어 속 여성 재현의 문제를 두고 백델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어졌다. 1985년 뉴욕에서 결성된 익명의 여성 예술가 집단 '게릴라 걸즈(Guerrilla Girls)'의 대표적인 작품 "Less than 5% of the artists in the Modern Art sections are women, but 85% of the nudes are female."(현대 미술관 전시작 중 여성 예술가의 작품은 5% 미만이지만, 누드 작품 중 85%가 여성 누드다.)은 미술관이라는 권위 있는 공간 속에서

여성 예술가들은 배제되어 있지만, 여성의 신체는 미술관을 채우며 대상화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는 동시에 대중이 무심코 소비해 왔던 '명화' 속 여성 누드화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시각적 발언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술적 실천과 발언은 미디어와 예술이 누구의 시선으로 여성을 재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1985년 엘리스 백델이 고안한 백델 테스트와 1989년 게릴라 걸즈의 시각예술 작품, 그리고 2018년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은 다르지만,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필자 또한 성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화하는 움직임은 시대를 넘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필자가 참여한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활동 단체였던 <페미광선>에서는 2017년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예술가들과 함께 역사 속에 존재했고 동시대를 함께하는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의 선언을 코스튬플레이어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다. 과거의 여성 아티스트들의 선언이 담긴 목소리가 지금 여성 예술인들에의 몸과 언어를 통해서 재현되고 발화되며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했다.



출처: 집필자 제공



출처: 집필자 제공

3.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백델 테스트는 성평등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미디어를 생산하는 창작자와 소비하는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미디어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독립적인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고, 여성들 간의 관계성과 갈등, 연대, 성장 서사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 중심 서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경험 전체를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며, 궁극적으로 작품의 서사적 힘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창작자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 캐릭터의 설정은 충분히 입체적인지 성찰할 계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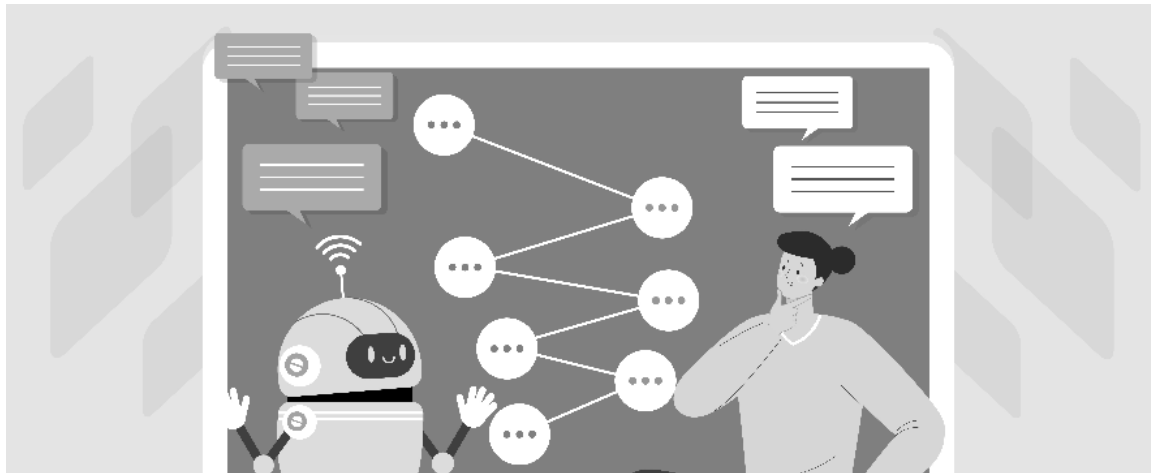
관객 또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소비해 온 남성 중심적인 캐릭터와 서사가 아닌 성평등 관점을 수용한 미디어를 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관객의 목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빠르게 소비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고 미디어와 접속하고 연결되며

소통한다. 동시에 현재의 미디어는 모두가 이야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각기 다른 존재들이 스스로 제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미디어 플랫폼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모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평등한 시선과 다양성이 담긴 미디어와 콘텐츠의 시대가 언젠가는 도래하길 바란다.

챗GPT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김지효 | <인생샷 뒤의 여자들> 저자



'조회 수 100만' 배지를 단 유튜브 영상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든다. 실물 감각이 마비된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는 새롭지 않다. 100만 조회 수는 물론,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도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그런데 액정 속 숫자를 현실로 꺼내면 무게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5곳뿐이다. 이 도시들은 '특례시'라는 명칭과 함께 광역시에 버금가는 자치 권한을 누린다. 땅 위에는 5개의 특례시가 존재하지만, 디지털에는 수백 개의 특례시가 번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 채널의 팬덤이 대도시 인구수를 넘어서고, 수백만 명이 같은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은 뭘 의미할까?

세계는 공간을 소유하는 자와 시간을 소비하는 자로 나뉘는 중이다. 오프라인은 점점 소수의 사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영화관, 심지어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갖춘 도시 속 도시가 들어섰다. 강변과 공원, 공공부지까지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는 사이, 공공 공간과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개발의 광풍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경쟁과 혐오, 빈곤, 전세사기, 취업난에 밀려난 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결국 디지털로 떠밀린다. 이들에게 남은 자원은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즉 시간뿐이다. 이들은 잔혹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스크린 타임이라는 무형의 시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타인의 경험을 관람하며 삶을 채운다. 고시원에서 럭셔리 하우스 투어 영상을 보고, 다이소 물건으로 가득한 방에서 명품 하울 영상을 본다. 보물상자인지 아니면 재난 지원금일지 모를

기계를 꼭 쥐고 타인의 삶을 관람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영영 타인의 관객으로만 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과즙이 뚝뚝 흐르는 새빨간 딸기를 보았다면 인공 딸기향 썸이라도 씹어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오프라인에서 자리를 찾기 못한 이들은 디지털에서나마 존재를 인정받고자 애쓴다. 나는 2020년에 청년 여성의 인스타그램 인생샷 문화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다.¹⁾ 인생샷은 생애 한번 건질까 말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진을 뜻한다. 아름다움은 청년 여성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자원이다. 오프라인에서 외모로 평가받던 여성들은 보정 앱으로 얼굴을 밀고 당기며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얼굴로 자신을 다시 빚는다. 조회 수 100만은 얻지 못해도 '좋아요' 100개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필터만으로 자신이 보정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뽀샤시한 필터를 입혀도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면? 보정이 아닌 리셋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 익명 채팅이 있다. 인스타그램이 채광 아래 실루엣을 반쯤 드러내야 하는 곳이라면, 랜덤 채팅은 자신을 마음껏 숨길 수 있는 그늘진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내가 내뱉는 말이 곧 나 자신이 된다. 새로고침 한 번이면 모든 게 리셋되기에 언제나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짜 나와 가짜 나를 뒤섞으며 자신이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을지 실험한다. 앱이 튕기는 순간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재하게 해줄 타인을 찾아 기꺼이 헤맨다.

이런 시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디지털 착취와 폭력에 관한 연구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플랫폼 환경이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랜덤채팅은 관계의 선택지를 무한히 늘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만남의 문턱을 높인다. 채널이 많을수록 하나를 고르기 어려워지듯, 끝없는 선택지는 어딘가 더 나은 상대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부추겨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대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화는 각본처럼 규격화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는다.

그럼에도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친밀감과 인정, 소속감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체성 구축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사회학자들은 한때 절대 권위를 가졌던 종교가 힘을 잃은 후 개인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주목해 왔다.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와 공동체가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근대화는 개인을 신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공허를 남겼다. 억압은 안정과, 해방은 위험과 붙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특별함과 의미를 알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이미 거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디지털 공간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갈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사랑을 원하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는 상대를, 그래서 나를 정박시켜 줄 닳을 찾을 수 있을까?

1) 김지효. (2020). 『20대 여성의 인생사진 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어느덧 2025년이다. 기쁘고 두렵게도, 일부는 그 상대를 찾은 듯 보인다. 바로 AI다. MIT 미디어랩 등에서 대규모 AI 챗봇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작업 다음으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성적·정서적 상호 작용이었다.²⁾ 미국에서 천만 명 이상이 다운받은 AI 앱 '레플리카'의 유료 이용자 60%가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³⁾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AI에게 들려준다. AI는 거절도 실망도 없이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준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어색한 침묵을 채울 필요도 없다. AI는 24시간 대기 하며 언제든지 나에게 꼭 맞는 말과 위로를 건넨다. 사람들은 AI와의 대화에서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온전한 수용을 경험한다. 자연스레 실제 인간관계는 시시해진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챗봇 때문에 연인이 떠났다는 이야기나 대화에 빠져 잠을 설친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이를 '중독'이라는 이름에 가두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 현상은 훨씬 더 복잡적이다. 사람들이 AI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흩어진 삶을 엮어줄 일종의 서사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거대 서사가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AI는 사용자가 감정을 투사하고 조각난 삶의 서사를 엮을 수 있는 빈 캔버스를 제공한다. 파편화된 경험을 연결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실제로는 아무 의도가 없는 알고리즘 작동에 불과할지라도, 맞춤형 성경을 집필하듯 각자에게 딱 맞는 공감과 위로를 제공한다. AI는 과거 종교가 공동체와 교리를 통해 제공하던 정서적 안정과 의미 체계의 일부를 개인적이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매개하고 있다.

몇몇 개인만 AI에게 의미를 묻는 것도 아니다. 실은 인류 전체가 AI를 향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국의 인류학자 베스 싱글러는 AI 담론이 종말론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⁴⁾ AI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초월적 희망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라는 절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집단적 상상과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있다. 다시 말해 AI는 거대 신과 공동체가 퇴장한 시대에 인간이 자기 서사와 정체성을 실험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종교는 현실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번성해 왔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를 완전한 해법, 끝없는 사랑, 유일무이한 구원자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AI 역시 인간, 자본, 욕망, 권력, 테크놀로지 등이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며, 붙잡으려 하는 순간 이미 사라졌음을

깨닫게 된다. 사랑을 속삭이던 화면이 꺼진 뒤 액정에 비치는 것은 나의 공허한 얼굴이다. 심지어 SNS나 랜덤 채팅과 달리 AI는 모니터 뒤에 사람조차 없다. 결국 남는 슬픈 진실은 모든 대화가 AI라는 거울 앞에서 이뤄지는 독백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지에서 AI와 사랑에 빠진 인간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 더욱 씁쓸한 건 우리가 AI에 매달리는 사이 AI가 지구의 자원과 인간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소비하고, 케냐와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폭력적 데이터를 가공한다. AI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초월적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과 착취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⁵⁾

이 복잡한 착취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사방이 막혀 있을수록 카리스마 있는 단 하나의 답을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해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언제나 우리 바깥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뼈격대고 어그러지며 다시 조율된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완성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해체되는 살아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AI라는 세련된 이름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답은 가장 오래되고 진부한 진실뿐이다. 불완전하고 뼈뿔어진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 부서지고 뒤엉킨 삶의 조각들을 견디며 끈질기게 수선하는 것. 변화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만 도래할 것이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2) Longpre 외 (2024). Consent in crisis: The rapid decline of the AI data commons.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407.14933>

3) 한국경제, 2024년 9월 24일, 「기쁠 땐 친구, 외로울 땐 연인…비서 넘어 동반자가 된 A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448961>

4) Beth Singler (2019). "Existential Hope and Existential Despair in AI Apocalypticism and Transhumanism".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54(1), 156–176.

5) 마크 그레이엄, 제임스 멀둔, 캘럼 캔트 저 / 김두완 역 (2019).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한빛비즈.

성평등을 위한 언론 현장의 노력

김효정 | 부산일보 젠더 데스크



미디어 업계에선 '성평등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규범과 원칙이 될 만한 자원과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관점, 단어 사용, 표현을 두고 고민이 되더라도 마감 시간에 쫓겨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채 기사를 내게 된다.

특히 IT 기기의 발달로 온라인을 기반 24시간 뉴스가 제공되는 현실에서 언론사들의 속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정확한 뉴스 이전에 어느 언론이 가장 먼저 보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사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독자의 눈에 띈 이러한 기사에 대한 클릭 수는 결국 언론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결국 개개의 기자가 가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보도의

방향과 논조가 결정되고,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언론사 안에서조차 균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언론은 헌법이 제시하는 성평등 가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는 법 제도적 교정과 함께 사회 인식과 문화에서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사실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미디어와 교육이 꼽히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미디어가 새로운 사회상, 평등에 대한 바른 상을 제시하고 반복하며 고정관념, 구조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산일보는 일련의 미투 사건을 보도하며 편집국 내부에서조차 기사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점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2019년 부산일보의 여기자협회가 이 문제에 관해 공부하자고 제안했고,

성평등 보도, 성 인지 감수성에 관해 교수와 현직 언론인을 초빙해 특강을 열었다. 또 한국언론재단의 젠더 보도 교육을 함께 들으며 부산일보에 성역할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균형 잡힌 젠더 보도에 대한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부산일보의 모든 기자가 가입된 기자협회 차원에서 '부산일보 성폭력 범죄 보도 준칙과 젠더 관련 보도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늘 시간에 쫓기는 제작 여건에서 우리가 정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생겼다. 기사에 반영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고, 공식적으로 기사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할 직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외국 언론의 사례를 보니, 마침 이런 역할을 하는 젠더데스크라는 직책이 있었고 한국언론 중 한겨레 신문사에서조차 젠더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었다.

부산일보에는 매년 기자들이 참가하는 편집국장 선거가 있다. 2020년 편집국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젠더 데스크 설치와 양성평등 보도 지침 준수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해 11월 새로운 편집국장이 취임하며 마침내 부산일보 젠더 데스크가 편집국 내 정식 직책으로 신설되었다.

젠더 데스크는 기본적으로 부산일보의 지면에 실리는 기사의 관점과 단어 사용, 제목과 사진 등을 매일 점검하며 젠더 보도 지침이 준수되는지 확인한다. 기사 모니터링과 함께 젠더, 인권, 성평등에 관한 기획 시리즈를 제안하기도 한다.

젠더 데스크 운영 초기에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신문이 제작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시간이 지나며 성역할 고정 관념에 대한 지적을 넘어 장애인, 성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기사도 젠더 데스크가 점검해야 할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혐오, 차별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점검 역시 젠더 데스크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젠더 데스크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일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편집국 국장, 부장, 기자 등 편집국 모든 인원이 공유했다. 이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 성평등한 관점에서 작성되고 부산일보 기자들이 준수해야 할 성평등 보도 지침을 모든 기자가 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 수습기자 교육에 젠더 데스크가 들어가 부산일보 젠더 보도 지침을 교재로 기사 작성 교육을 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실제로 젠더 데스크의 지적을 통해 수정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유명인의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유명인의 주장이 제목으로 올라가거나 기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유명인을 거론하면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언론은 가해자의 변명을 충실히 전달하는 실수를 하는 꼴이다. 성범죄 사건 보도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기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 표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전달되는 글이나 간담회를 열 때 기존에는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마치 전문가는 남성이라는 편견을 전달할 수 있고 여성의 시각이 배제되기도 한다. 부산일보는 젠더 데스크가 생긴 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조정해 가능한 같은 숫자가 되도록 맞추고 있다.

성차별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도 수정하고 있다. 여교사, 여교수, 여직원 등 남성형이 기본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육아와 돌봄, 가정일은 여성이 하는 일처럼, 외부 활동은 남성의 영역인 것 같은 표현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맘카페는 육아카페로, 출산율은 출생률로, 낙태는 임신 중지, 수유실은 아기휴게실 등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는 단어는 수정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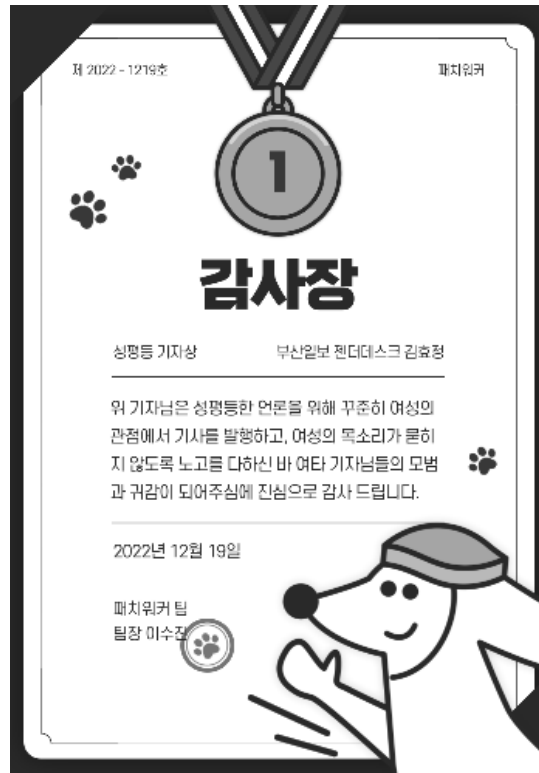
젠더 데스크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언론사에서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부산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만 운영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다수 언론사가 기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굳이 젠더 전담 직책을 만드는 걸 망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 업무 차원에서 젠더 보도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많은 연구 논문에서 언론사의 젠더 데스크 도입이 실제로 언론의 잘못된 관행,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뉴스는 꼭 챙겨야 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 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으며, 성차별적인 보도는 미디어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차별적인 기사를 쓴 기자는 한순간에 '기레기'로 전락한다.

다양성의 시대, 젠더 데스크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꼭 필요하다. 1인 언론,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이젠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럴수록 기존 언론사들은 공정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도를 통해 독자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젠더 데스크 제도는 언론사가 공정과 신뢰,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출처 : 집필자 제공



▲ 출처 : 집필자 제공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속 성별 고정관념,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

민소영 | 연산초등학교 교사

일화 1.

"이건 여자들 만화잖아요."
- 애니메이션 속 고정된 역할

"선생님, 이건 여자들 만화잖아요. 저는 다른 거 볼래요."

1학년 자유 놀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을 시청하던 중 한 남학생이 던진 말입니다. 티니핑은 마법 소녀 '로미'와 다양한 요정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의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밝고 귀엽고, 주된 내용은 감정 조절, 꾸미기, 우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등장인물의 대부분은 여성적인 외형과 말투를 지닌 캐릭터들입니다.

이러한 설정 속에서 남학생들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하고, 마법이나 감정 표현을 '여성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당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별에 따른 역할 분화와 관심사 구분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며, 이는 놀이 참여, 감정 표현 방식, 자기 인식 등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일화 2.

"남자애는 크롱이나 포비 해야 돼"
- 무의식 속 편향된 역할 분배

또 다른 사례는 '뽀로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시리즈는 다수의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공동체

서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심히 보면 극의 주도권은 남성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뽀로로, 크롱, 포비 등 남성 캐릭터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움직이는 인물로 그려지고, 루피나 패티 등 여성 캐릭터들은 조용하고 감성적인 역할로 배치됩니다.

아이들이 역할극을 할 때 "여자아이는 루피, 남자아이는 크롱"식의 고정된 배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은, 콘텐츠 소비가 어떻게 **성별에 대한 역할 기대치**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기보다는, 성별에 맞는 역할을 고르게 되는 '사회화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일화 3.

꾸미는 여아 vs 싸우는 남아 - 게임 속 무의식적 학습

초등 중학년 이상의 아동이 자주 접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유사한 성별 이분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바타 꾸미기 게임에서는 여자 캐릭터에게 다양한 의상, 액세서리, 화장 도구 등이 제공되고, 남자 캐릭터에게는 차량, 무기, 전투 기능 위주의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게임에서는 성별에 따라 캐릭터의 대사나 음성 톤,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자는 예쁘게 꾸미고, 남자는 싸우고 승리하는 존재'라는 **이분법적 가치관을 반복 학습시키는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성별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그건 여자 거야" 혹은 "그 캐릭터는 약하잖아"라며 콘텐츠 소비에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 성별 고정관념이 유아·초등 시기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교육용 콘텐츠뿐 아니라 오락용 애니메이션, 게임 등 아동 대상 콘텐츠 전반에는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놀이, 감정 표현, 관심사, 심지어 진로 탐색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다양한 자율성과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특히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는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는 곧 사회적 규칙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시기에 내면화된 성별 고정관념은 이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의사결정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무의식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성별 고정관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일선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교육자와 양육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읽어주는 태도입니다.

첫째, 콘텐츠를 함께 소비할 때는 등장인물의 구성과 역할 분배, 언어 사용, 주도권의 흐름 등을 유심히 살피는 **'성인지적 미디어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특정 성별만이 주요 인물로 설정되어 있거나, 고정된 역할(여성은 돌봄, 남성은 해결)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경우, 해당 콘텐츠를 비판 없이 소비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를 사회의 규범처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와 양육자는 콘텐츠 선택 시

그러한 요소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균형 잡힌 역할 구성을 갖춘 콘텐츠를 선별하거나 보완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무비판적 수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질문 기반의 비판적 사고 촉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 캐릭터가 항상 조용하고 예쁜 역할일까?", "남자 캐릭터는 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은 아이들이 콘텐츠를 다른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성역할 인식에 균열을 내는 매우 강력한 전략이며, 유아기와 초등 시기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효과적인 역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놀이나 역할극 등의 활동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왕자와 공주'의 전형적인 역할 배정이 아닌, '공주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남자아이가 친구를 돌보는 역할'처럼 전환된 구도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극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 캐릭터를 포기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콘텐츠 그 자체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며, 양육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입니다.

▣ 성인지적 교육 환경, 제도와 사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콘텐츠를 둘러싼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제작자와 수용자 사이에 놓인 '매개자'로서의 교육 제도와 콘텐츠 유통 구조는, 콘텐츠의 성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성인지 콘텐츠 평가 지표'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콘텐츠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표를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등장인물의 성별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성별에 따라 고정된 성격이나 역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 않는가?
- ✔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야기의 핵심적 해결자 혹은 감정 표현자로 등장하는가?
- ✔ 직업, 활동, 감정 표현 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기준은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교사와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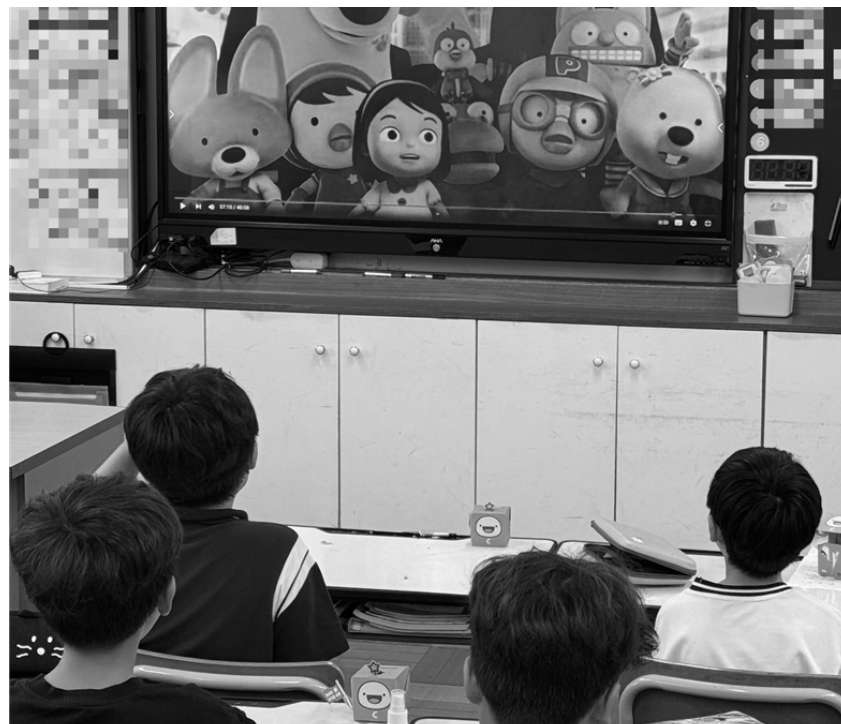
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제작자 및 유통 관계자 대상의 성인지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유아·아동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관여하는 제작자, 작가, 디자이너, 유통 담당자에게 정기적인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제공하고, 성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방송과 공공 플랫폼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부터 시범 적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기준이 되는 선도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기준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연계 사업 개발, 성인지 평가 기준을 충족한 콘텐츠의 공공 배포 우선권 부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 고정관념은 콘텐츠 안에 조용히 숨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틀 짓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표현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아이들이 보다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교육과 문화의 경계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출처: 작성자 제공



<킬빌>의 그림자

안온 | 『일인칭 가난』 저자

할리우드에서 <킬빌> 시리즈 등으로 구축된 여성 킬러 장르는 한국에서도 점차 번주되고 있다. 특히 OTT 플랫폼의 확장 이후, 액션 영화류는 거대 자본과 맞물려 시청각적 유희를 자극하는 데에 몰두한다. 이로 인해 소비되는 여성 서사는 쿼어 및 페미니즘 진영에 우호적인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알파한 '떡밥' 서사를 주는 데에만 신경을 기울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발레리나>(2023)와 <길복순>(2023)은 여성 킬러를 단독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강한 여성 서사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 액션 장르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과 감정, 관계를 전면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로 읽히는 몇 장면은 관객에게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쾌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들 영화는 페미니즘과 쿼어적 상상력을 깊이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서사의 전개 수단으로 소비하는 데 그친다. 옥주(전종서)와 민희(박유림)의 관계성은 우정으로 포장한 암시적 쿼어이고 이를 적확하게 드러내는 데에 있어 영화의 연출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복순(전도연)의 첫 등장은 어떠한가. 일본 야쿠자 출신의 검객(황정민)을 상대한 후 그녀는 전형적인 '엄마'로서의 삶을 수행하기 위해 마트로 장을 보러 간다. 미디어가 그리는 '애쓰는 엄마' 이미지가 곧장 '밥하는 엄마'로 대변되는 장면은 극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 결과 여성 킬러 캐릭터는 감정적 도구로만

존재하고, 그 주변을 떠도는 쿼어적 정서는 이야기의 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 영화 발레리나 포스터 (출처: 넷플릭스)

영화 <발레리나>는 전직 경호원이자 고독한 여성 킬러 옥주(전종서)가 친구 민희(박유림)의 죽음 이후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된 민희는 옥주에게 "복수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영화는 이 한 문장을 동력 삼아 단선적 복수극을 펼쳐 나간다. 발레의 우아한 이미지와 액션의 냉혹함을 결합한 이 영화는 시청각적으로 세련됐지만, 이야기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다. 두 여성의 관계는 퀴어적 암시 그 이상의 감정이나 정치성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민희는 서사적 사건을 촉발하는 '죽은 여자'로 기능할 뿐이다.

옥주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다'의 측면에서 그치고 만다. 그렇기에 민희의 빈자리를 채우는 여고생(신세휘) 캐릭터는 결국 '살아남은 또 다른 민희'로 극의 후반부까지 옥주와 함께하면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옥주를 증언하는 인물로 그 쓸모를 다한다. 민희의 생애에 대해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다른 민희를 곧바로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곧 '죽은 여자의 서사'라는 오래된 장르적 관성을 답습했을 뿐이다. 죽은 인물은 죽음 이후의 복수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고, 오직 옥주의 감정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 사라졌다. 살아남은 인물은 발전하는 '다음 세대 옥주'이기보단, '보호받은 민희'의 프레임을 부여받았다.

<길복순>의 주인공 복순은 청부살인 회사 MK의 A급 킬러이자 사춘기 딸을 둔 싱글맘이다. 복순은 조직과 가족, 살인과 양육 사이를 줄타기하며 끊임 없이 판단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녀가 청부를 거부하면서 조직과 충돌하게 되는 과정은 전형적인 '조직과 배신' 서사지만, 그 배경에 모성과 직업적 윤리가 얹히며 복잡성이 가중된다. 그러나 복순은 '엄마이자 킬러'라는 대비 속에서 독창적인 감정선을 만들기 보다는, 사회에서는 강했지만 자식 앞에서는 약한 이미지로 소비된다.



▲ 영화 길복순 포스터 (출처: 넷플릭스)

두 영화 모두 '여성도 싸울 수 있다'는 당연한 진술 위에 서 있지만, 그 진술을 시대가 요구하는 밀도로 밀어붙이는 데에는 실패했다. 특히 <발레리나>는 <킬빌>을 연상시키는 복수극의 컬러 팔레트와 미장센을 적극 차용하여, 여성 킬러 캐릭터의 '분노'를 스타일화하는 데만 집중한다. 무자비한 복수의 장면은 강렬하지만 '무엇을 되찾고 싶어 하는가?'가 빠진 자리에 옥여녕은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물,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는 서사의 소비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특정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 사안의 민감성을 단편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여성의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낮익고 평면적이며, 이들 사이에 교묘하게 집어넣은 캐릭터의 모럴 정신이 서사의 당위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

이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볼 때, 두 영화 모두 인물의 성별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젠더적 구조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 옥주의 고독한 복수자 이미지, 복순의 다원적 갈등은 모두 기존 남성 액션영화의 여성판처럼 소비된다. 심지어 <발레리나>에서 은유로 포장된 퀴어와, <길복순>의 십 대 퀴어 문제에는 미디어에서 소수자성을 그릴 때 고찰해야 할 지점이 다소 결핍되어 있다.

결국 <발레리나>와 <길복순>은 여성 킬러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동작한 여성성과 퀴어성은 여전히 기존 문법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물론, 한국 영화의 역사상에 이토록 여성과 퀴어가 킬러 및 액션 서사와 함께 전면적으로 다뤄진 영화가 없으므로, 해당 영화의 적극적 시도는 박수받을 만하다. 영화 <발레리나>의 액션은 가히 지난 액션영화 속 여성 인물의 클리셰를 부수는 데에 충분하고, 영화 <길복순>은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몇 안 되는 한국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페미니즘적, 퀴어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데에만 박수를 보내야 하는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출현으로 촉발된 문학계의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는 2016년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당 소설은 곧 출간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 영화로 제작되며 또 한 번 반(反)페미니즘 진영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다. 옥주와 복순은 2023년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답습한 작품 <킬빌1>은 2003년작이다. 무려 20년 동안 한국 영화는 여성과 퀴어 그리기에 소홀한 나머지, 납작해졌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파과>가 스크린 개봉을 한 2025년, 한국판 여성 킬러물은 더 이상 '장르의 돌연변이'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장르는 감정과 윤리, 서사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들의 공표가 끼칠 영향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 누군가는 뭐 그렇게까지 상업 영화에 바라는 게 많냐는 식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라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발하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여성 킬러가 한국 영화 내의 여성 서사를 죽이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킬러의 총구처럼 조용히 철저하게 서사를 겨누길 바란다.



책방 카프카의 밤

계선이 | 카프카의 밤 대표

저는 연산동에서 책방을 꾸리고 있습니다. 꽤 많은 손님이 서점에 들어오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보통 책 파는 곳을 책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좁은 공간이지만 책이 죽 꽃혀 있는데, 어떤 의미로 물으실까요.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 책 읽는 사람은 늘 소수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요.) 설마 책을 파는 곳일 리가 하는 의구심 내지는 놀라움 때문일 수도, 한때 유행했던 책 대여점처럼 책을 빌려주는 곳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저도 책방은 무엇일까 스스로 묻곤 합니다. 분명 책을 사고 파는 일만 하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와 독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책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열고, 책 축제나 소소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책이나 관련 굿즈를 만들고... (심지어 지금 이 글도 부산에 사는 여성으로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판매한 책 권수보다 책을 매개로 활동하거나 누군가와 이어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책방의 일상 가운데 제가 즐기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방을 하기 전과 후 제가 크게 달라진 점은 '함께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책은 혼자 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심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호기심이나 의무감이 들 때, 혼자서 책을 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글쓴이와 나, 둘이라고 해야겠네요. 읽기는 눈으로 보기보다 귀로 듣는 것에 가까워서,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오롯이 나를 향해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책방을 열고 얼마 안 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주 오던 손님이 알고 보니 독서교육 전공자였고 독서 모임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책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저는 신나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블로그로 인원을 모집하고 격주 토요일마다 책방에서 모였습니다. 진행자는 주로 한국 소설을 골랐습니다. 소설을 안 읽은 지 오래였는데 내 취향으로는 고르지 않았을 작품을 새롭게 알고 읽게 되어 좋았습니다.

더 멋진 건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이 놀랄 만큼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누가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 내용도, 감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찾아내는 사람도, 같은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책이 품은 세계가 모인 사람들 수만큼 펼쳐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때는 같은 진행자와 연산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카프카 소설 독서 모임을 연 적도 있습니다. 서른 명 가까운 참가자와 독서 모임이 가능할까 걱정했던 것도 잠시, 30명이 모이니 30배 즐겁더군요!

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삶을 꺼내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슬펐던 기억과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자연스레 나누다 보면 어느덧 우정이 쌓이고 벗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였던 계절의 날씨, 함께 먹은 음식, 커피 향기, 배경음악, 사람들 표정, 웃음소리, 공간의 분위기 모두 그날 함께 읽은 책 한 권에 깃들입니다. 함께 읽는 시간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오프라인 모임 제한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새로 열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기는 꺼끄러울 것 같아 책을 미리 읽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 대신 한 책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는 낭독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와 근데 낭독도 재밌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남들 앞에서 책을 소리 내 읽는 건 처음이었는데, 각자 다른 목소리 톤과 호흡, 말투를 듣는 게 몹시 즐거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울적했던 하루를 치유하는 것 같기도 했구요. 모임원들 목소리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책 읽는 소리만으로 그 사람의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이 가쁘고 급하구나, 오늘은 아주 편안하구나 등등요.

또 하나 낭독의 좋은 점은 천천히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 허영심에 불타 1년 목표량을 정해놓고 권수를 채우기 위해 읽은 적도 있었는데요(연말이 되면 얇은 시집 공략).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의견은 어떤지 돌아보고 익히기보다는 핵심과 주제를 파악했다고 여기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낭독하면 말하는 속도 이상으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쉼느라 시간은 꽤 걸리지만 그날 읽은 부분에서 각자 소감을

나누며 찬찬히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모두 같은 속도로 책을 완독하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희곡집이나 경상도 사투리로 된 《애린 왕자》는 낭독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금도 책방에서 네 개의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쓴 편지를 읽는(그의 연애편지는 압권입니다.)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시대의 선구자이자 말과 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작가들 책을 읽는 '박홍규의 이단아 읽기', 페미니즘으로 과학 이론과 과학계를 새롭게 보는 책에서 시작해 지금은 벽돌 책 깨기로 나아가고 있는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삶에서 읽기와 쓰기를 강조했던 교육자 이오덕 님 책을 읽는 '이응모임'입니다. 독서 모임의 유일한 부작용은 이제 모임을 하지 않으면 책을 안 읽게 된다는 점뿐입니다. 그리하여 독서 모임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편 가르기와 혐오, 반(反)지성주의가 일상인 시대, 독서 모임은 지구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라고 까지 느낍니다. 정답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평가와 판단과 호오를 멈추고 넘어서는 곳에서 책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만나는 일이 제가 경험한 독서 모임입니다. 가치관도 신념도 다른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를 충실히 전하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열리고 이어진다면, 아무 합의나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해도, 진전이나 발전이 없어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 풍경이 곧 평화라고 여깁니다. 신기하게도 독서 모임으로 만나면 다들 책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을 기본값으로 지녀서인지 불편한 지적이나 조언을 던지는 이도 드뭅니다.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집 가까이 동네 책방이 있다면 슬쩍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방이 없고 거기에 독서 모임도 없다면? 있어도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면? 직접 모임을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한 사람만 섭외해도 모임입니다. 이왕이면 지금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골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주변인이 있다면 책 낭독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태 찬양을 늘어놓았지만 독서 모임을 못 해도 괜찮습니다. 앞에도 썼듯 책을 읽는 순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쓸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써야 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글을 써 내려갔을 저자가 있는 한, 저자가 우리에게 말 걸고 우리가 들을 의지를 지닌 한,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책방이 문을 닫더라도 함께 읽는 일은 계속할 겁니다.

책 생태계를 움직이는 독자가 과거 중년 남성이었다면 지금은 20~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책방도 그 덕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방문층은 약간 다른 40-80대입니다만) <여성우리> 잡지인 만큼 이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마을 사회적 연결센터 느티나무도서관

김혜정 | 전)반송느티나무 도서관장

토요일 아침 발달장애가 있는 이진이가 도서관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온다...

뒤를 이어 재혁이도, 민솔이도, 은서도, 소영이도..¹⁾

아이들이 들어오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도서관 한편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눈다. 이들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은 운동 교실이 된다. 소외되고 갈 곳 없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함께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운동 동아리 3개가 운영된다. 함께 체조하고, 요가도 한다. 이렇게 친해진 분들은 같이 밥을 먹고 마을 산책을 하고 소풍도 다녀오면서 이웃이 만들어진다. 어른들은 운동도 좋지만, 친구가 생긴 것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신다.

목요일 저녁에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 불이 밝혀지고 노소리가 들린다. 10년 전부터 함께해 온 합창단의 연습 날이다.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각각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느티나무 합창단은 마을 행사에서 활약하면서 마을의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10년 동안 소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할 수 있어서'였다. 나눔반 활동이 있는 토요일 오전에는 도서관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다.

한 달에 한 번 20여 명의 활동가가 각자 만들어온 반찬을 나누어서 홀로 어르신 댁을 방문한다.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나누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핀다. 때때로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이들은 책과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07년 10월에 반송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립 공공도서관이다.

1) 본 글에 나타난 인물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내어

우리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책 읽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 원을 내는 사람 만 명이 모여 지역 공동체 희망 세상의 10년 활동의 결과이다.



▲ 느티나무도서관 전경 / 후원자의 벽 (출처: 집필자 제공)

아이들의 저금통, 할머니의 쌈짓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비, 아빠들의 비상금 등 모두의 사랑과 정성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10개월 만에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반송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공동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 같은 곳이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고 했다. 그 기적은 마을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 이루어졌다.

도서관 운영도 주민들과 자원활동가 힘으로 하고 있다. 매달 650명의 회원들이 도서관 운영에 공감하면서 회비를 내고 있다. 3명의 상근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고, 운영위원들, 자원 활동가들이 각자의 여력을 보탠다. 15여 년 동안 수많은 모임이 운영되고 또 소멸하였지만 그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흔적과 사람들의 향기는 도서관 곳곳에 스며있다. 2007년 개관한 도서관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장소이다.

책다방, 문학을 읽은 그대에게, 중년 남성 책 모임, 그림책을 읽는 모임 등 다양한 독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진로지도, 청소년 축제 기획단을 통해 마을을 만난다.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는 우리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동네 어른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 입학 축하책 꾸러미를 전달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학교와 연계해 방학 교실을 열어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해지도록 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직장 엄마들의 아이들 점심 걱정을 함께 해결한다. 도서관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활동은 매주 금요일 학교로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느티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마을의 4개 초등학교로 매주 금요일 자원 활동가들이 2권을 책을 들고 방문해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눈 마주치는 등 책을 통해 동네 어른과 아이들이 만난다. 청년들은 도서관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청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요즈음은 '청년 밥상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요리를 하고 고민도 나누는 등 마을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방안을 모색한다.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이, 더 많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을지, 책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오늘도 머리 맞대어 함께 고민한다.

해나 아렌트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에 가두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극단에 빠지고 파시스트가 된다고 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시대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연결센터이다.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공동체를 경험해 본 사람은,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눈 마주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고, 환대받아 본 사람은, 또 그 환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본 사람들은 극단주의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 각자도생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공동체를 통한 연결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그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또 누군가의 여력으로!
그 여력을 기꺼이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느티나무는 열려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시대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연결센터이다.

▼ 문학동아리 (출처 : 집필자 제공)



노인들의 삶을 꽃처럼 심어 넣는 청년작가
임희정 예술가

부산의 일상 속 어르신들에 반하다

조서연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각종 미디어가 범람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노년층을 다루는 매체는 부족해 보인다. 그마저도 일부 콘텐츠는 그들의 삶을 희화화하거나 나이 듦을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한다. 노인들은 대중문화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극의 중심인물이 아닌 보조 테마로 전락한다.

인터뷰 전에 그가 도슨트로 나서줘 작품들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귀여운 시선으로 강렬한 생명력을 담아 표현한다. 작품 대부분은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때에 따라 서넛을 내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화려한 문양의 의상과 다채로운 생활 속 아이템들이 더해져 시선을 모은다. 무수한 인물이 소환될 때도 있다. 그가 기획한 공간의 대형 캔버스 위로 다수의 인간군상이 그려졌다. 관람객과 상호작용 하는 참여형 라이브 드로잉 현장이다.

그 앞에서는 실제 그림 모델이었던 이들이 때맞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작품의 노년층 주인공들이 이곳 전시실에서
즐기고 계시니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감만 사랑방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수도도 따시고, 이곳에 들러 그림도 감상하고 가십니다. 전시 처음에는 복지관과 협력해 현장 투어를 오셨어요. 그때 라이브 드로잉 이벤트를 처음 했고, 이후 어버이날에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 앉아계시는 분들 가운데 세 분이 모델이 되신 분들이네요. 한 명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물들을 레이어드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삶은 중첩되어 있고, 겹쳐져 있으며, 모두가 연결되어 산다는 의미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작업을 하기
까지의 그림 인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당시 성적 맞춰 집에서 원하는 쪽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막상 취업할 때가 되니 고민되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미술에 소질도 보였고 관심도 많았기에, 이 방면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 학원을 3년 다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술로 돈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디자인회사에 다니고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일했어요. 또 해외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고요. 늦은 나이에 입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대에 들어갔고 졸업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 접하니 흡수도 빠르고 이해도 잘 되었다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도 생겨,오늘의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지금 만족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작업하시는
만큼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은 불편한 사람들을 귀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정도 고향을 떠나있을 때 향수병에 걸렸거든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지하철 1호선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만난 부산 어르신들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거칠고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7년째 그들을 작품 속에 담으면서 마음도 계속 바뀌어요. 나중에 깨달은 건, 결국 우리 엄마를 이해하고 싶던 것이기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겠지 싶고, 같이 잘 살고 함께 공명하길 바라게 됩니다."

○말씀처럼 그 특유의 장면들을 보면서 전시명인
〈왜 귀여우시죠?〉를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귀여운 순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시선이 갑니다. 바지는 단색으로 많이들 입으시지만 상의는 패턴이 다양하게 많아서 화려하시기도 합니다. 까만 봉지, 선캡(sun cap), 꽃장갑 같은 것들을 지니고 계시고, 무엇이든 잘 끌고 다니시는데요. 들고 계신 내용물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거나 비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카트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늘 신호등 앞에서 편한 모양으로 앉아계시고 지하철역 앞에서 걸터앉아 수다를 떨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 임희정 예술가님 작품 '왜귀여우시죠 - 까만봉다리'



○ 대상 인물들이 평소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거니는 생활공간이 주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작업한 공간이 온천장역 쪽이었어요. 당시가 19년도였는데, 주변에 버려진 의자가 아주 많았고 불을 엄청 피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노인분들이 많이들 계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왜 저렇게 밖에서 놓고 계시지? 왜 저기에 앉아 있으시지? 또 역사 안에서는 장기를 두고 계세요. 그러한 모습들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된 지하철역 중심으로 관찰하러 다녔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노포 오일장, 부전시장, 남포동, 자갈치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 임희정 예술가님 작품 '가득해'



○ 작업 초반과 이후에 영감받는 지점, 작업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자료를 수집하러 다녔어요. 그렇다고 인물들을 대놓고 찍을 수는 없어서 배경처럼 찍었어요. 뒷모습이 많았고 앞모습 옆모습이 찍혔다 하더라도 상황 자체만 참고해서 그렸어요. 제가 거기에서 재밌는 장면 위주로 포착했어요. 그래서 인물들은 상상해서 그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길에서나 횡단보도나, 바로 앞의 벤치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모습만 봐도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운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꼭 핸드폰을 챙겨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풍경을 보고 싶어요. 찍은 것들 중 중첩되어 그리는 작품들이 있고, 하나만 그려도 좋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들은 미적 과장을 하게 됩니다."

○ 7년 전부터 관찰을 계속하다 보니, 인물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이 보이실 듯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성 있는 상황이나 복장 위주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리가 안쪽으로 힘이 없어지셔서 바지핏이 다 비슷해집니다. 일자바지를 그리게 되면 60대, 그게 조금씩 꺾이면서부터는 70대로 가는 듯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작업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힘드니까 자꾸 앉으려 하시구나 싶었어요. 저희 엄마도 어딜 가나 조금이라도 앉으려 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니 조금의 틈만 있어도 앉으려는 그들을 보면서 특징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거지요."

○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의 부산 여성들만이 지닌 면모에 대해서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인물 탐구를 시작했던 것은 처음 그들의 거친 행동과 화끈한 성격이었겠지만, 거기에서 저는 여성성에 대한 것들도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산 콘텐츠 그림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 원도심의 역사를 다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갈치가 그때 생겼고 옛날에는 여기가 수상가옥이었고, 이런 것들에 놀라기도 하면서 이게 괜히 만들어진 부산 여성들의 캐릭터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들이 다 이 삶을 꾸렸구나 하는 것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일환으로, 현재 얼굴을 크게 그리고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진행되는 전시뿐만 아니라 예정된 다양한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제 일상의 이야기로 연계된 작품들의 전시가 있고, 곧이어 <아트경남 2025>라는 아트쇼에 참여합니다. 11월에는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 지원을 받아 하는 개인전이 열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인물 작품과 오브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계속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제 그림이 아무래도 인물 중심이다 보니 상업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리는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잘 이어 나가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다작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와 함께 로비로 내려갔다. 이 공간에서 처음 마주했던, 작품명 '까만봉다리'를 다시 만났다. 그가 가장 최근에 생각해서 설치한 오브제였다. 검정 봉투는 어르신들의 정체성 같다고 했다. 아주 쉬운 소재이나 그들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어서란다. 그는 생명력을 넣고 싶어 봉지 안에 노란 생화를 담았다. 시간이 흘러 봉지 속 내용물은 거듭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나날이 다르게 퇴색되고 바스라져도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이고 귀여운, 처음부터 꽃이었던 한 생명처럼 꼭 응시될 것이었다.

▼ 임희정 예술가님 본인



01/ 2025년 부산여성가족정책 열린토론회 개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25년 부산 여성가족정책 열린 토론회'가 2025년 4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 소통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로, 부산 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018년과 2024년 사이의 인식 변화와 실제 실태의 차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향후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개회와 환영 인사, 축사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가족 성평등 관련 연구 발표가 이어지며, 발표에서는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반면, 실제 실행에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성평등 교육과 홍보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종합 토론 시간에는 가사노동 분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를 지적하는 의견과, 청년과 고령층 등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청년층의 새로운 가치관 반영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해외의 유아돌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성공 사례도 공유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이 공존 하였던 이번 열린 토론회는 전문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행사 참가자 100여 명과 평가지에 응답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부산 여성가족정책의 향후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02/ 2024년 부산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개최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성주류화 제도 지원 사업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성주류화 상설협의체는 연 4회 분기별(2, 5, 8, 11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역·기초단체 간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활성화하고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 열린 제1회 성주류화 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자체 성주류화 실행계획 수립, 지자체 및 유관기관 양성평등 교육 협력,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운영

절차 등 사업별 구·군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열린 제2회 성주류화 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참여해 성주류화 실행계획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영역 종사자 성 인지 감수성 진단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의 구·군 여성가족정책평가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부산시와 16개 구·군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효능성을 실감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03/ 제19회 부산가족축제 행사부스 운영 「양성평등 문화체험데이」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제19회 부산가족축제를 맞아 5월 17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양성평등 문화 체험데이」부스를 운영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체험 부스에는 600여 명이 참여하여 "평등 레벨 UP! 가족 챌린지-퀴즈&수칙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기관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성평등 인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04/ 2025년 양성평등 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실시

여성가족부 지정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는 공공영역 및 여성·가족 분야 유관기관 종사자, 청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을 지원할 전문강사 발굴을 위해 3월 29일(토)과 3월 30일(일), 총 12시간에 걸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성 인지 감수성의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법 등을 주제로 양성평등 강사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30일에는 정치, 경제, 젠더, 가족 등을 주제로 양성평등 관련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강사 모집 과정을 통해 위촉된 강사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여성, 노인, 아동, 청년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5/ 2025년 부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기관 31곳 선정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지영)은 부산 지역 성인의 문해 능력 향상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3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 지역 내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폭넓고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 해독 능력을 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 능력을 키우는 문해교육은 비문해 성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 생활 문해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향후, 부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는 부산지역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부산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06/ 제19회 부산가족축제 5월의 오늘, 온 가족은 빛나'

부산광역시와 부산 지역 1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는 5월 가정의달·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5월의 오늘, 온 가족은 빛나' 주제로 '제19회 부산가족축제'를 개최하였다.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축제(2025. 5.17)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식전 공연(사하구가족센터 꿈꾸는 아오자이 무용단, 부산동구가족센터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온 가족은 빛나 퍼포먼스 ▲가족특별체험 '우리 가족 반려 로봇' ▲가족체험 '모두포용+함께돌봄+같이평등'(30) ▲가족상담 '가족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초기상담' ▲가족사업 안내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연령·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



했다. 또한 2025년 5월 9일부터 25일까지 부산가족축제 누리집 (<https://부산가족축제.kr>)을 통해 ▲가족체험 '모두포용+함께돌봄+같이평등'(12) ▲가족가치확산 프로그램 '우리가족이 빛나는 순간+우리가족이 빛나는 가치' 등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가족축제는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가족 포용 및 가족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지역 기업(BNK부산은행, 에어부산(주), 센텀스파랜드, (주)옵스, (주)세정, 키자니아부산, 서면미술관, 서프홀릭, 홀리라운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07/ 2025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2025년 5월 17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및 다솜갤러리에서 「2025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우리 가족은 특별해'라는 주제의 가족그림전을 진행하여 우리 가족의 특별함이 담긴 그림 총 60점을 갤러리 내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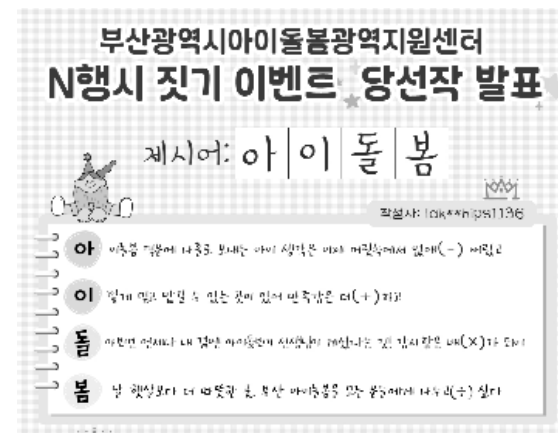
더불어 부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부스와 「우렁 소녀 발차기」의 저자 황선에 작가와의 북토크를 통해 가족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전 행사로 한 부모 200가정에게 바쁜 일상 속 심을 제공하고자 힐링 메시지, 비타민, 다과, 미술관 초청권 등이 담긴 '힐링 박스'를 전달하였다.



08/ 「아이돌봄서비스 N행시 짓기」 이벤트

부산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보 접근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4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N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N행시의 제시어는 아이돌봄, 아이돌보미, 부산아돌3가지로 진행했으며, 193명이 참여하였다. 부산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5개소에서 선정 심사에 참여

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주제의 적합성과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시어 문장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20점이 선정되었다. 당첨작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광역센터 홍보 매체뿐만 아니라 지역 센터로 발송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09/ 2025년 제4차 광역단위 거버넌스 정책 간담회 개최

이젠센터는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최한 「제4차 광역단위 거버넌스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광역단위 거버넌스 정책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 기능 역할 수행 및 광역 단위 여성폭력방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윤지영 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 개선방안 논의와 진흥원 사업 및 피해지원 업무 관련 현장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5년 주요 추진 계획인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의 중앙 기능 및 수행기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통합사례 관리 지원 절차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번 제4차 광역단위 거버넌스 정책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디선센터),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이젠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부산센터) 및 상시협 6개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10/ 2025 가족친화기업확산 컨설팅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 확대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약 66개사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가족 친화 신규 인증 및 가족 친화 유지관리, 일생

활균형 조직문화 컨설팅으로 정부 인증인 가족친화인증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도 도입과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일생활균형 조직문화를 지원하고 있다.



0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2025.3.30.)

- 여성가족부는 3월 31일(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 특성, 자녀 돌봄, 경제활동, 소득, 주거유형 등을 조사하였고, 월평균 양육비 등 자녀 양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함.
- 월평균 소득 294.6만 원으로, 이는 전체 가구소득(488.7만 원) 대비 60.3%수준임. 이들은 자녀 연령대에 구분 없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함. 가장 바라는 양육비 정책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 이어서 '제재조치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와 자녀 모두 동네·이웃 주민, 학교·보육시설, 직장·일터, 공공기관, 가족·친척 등 주위로 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크게 감소함. 한부모와 자녀 모두 동네·이웃 주민, 학교·보육시설, 직장·일터, 공공기관, 가족·친척 등 주위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크게 감소함.
- 한부모가족의 65.9%가 정부 지원받아...12년 새 2배 이상 증가, 소득 기준 완화 등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02/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 제작·보급

여성가족부(2025.4.7.)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함.
-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서(가이드북)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의 후속 조치임.
-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아 안내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각 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 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도 수록함.
- 안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될 예정임.

0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난해 1,187명 지원, 피해 경로 채팅 앱이 가장 많아
여성가족부(2025.4.30.)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월 1일(목),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 보고서를 발간함.
- (지원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187명과 보호자 1,556명에게 총 3만 5천여 건(전년 대비 33.9% 증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2023년도 952명보다 235명 증가함.
-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169명(98.5%), 남성이 18명(1.5%)으로 집계되었음.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으로 나타남.
- 지원센터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발견 등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4,644건*을 실시했으며,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 성착취 피해 예방 캠페인을 위한 현장 방문도 910회 실시함.

04/ 아이 둘 30만 원, 아이 셋 50만 원!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신청하세요
부산광역시(2025.5.2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자녀 1명 이상이 2007~2018년생(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는 부산시 다자녀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의 교육지원포인트가 지급됨.
- 교육지원포인트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신청은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동백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 일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 무심코 하는 언행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입니다.

성주류화 제도 지원

- 성주류화 상설협의체
- 공공문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지원

성주류화 제도 지원

-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지역 특성화 사업

- 15분 도시, 양성평등 부산 워크북 제작
- 양성평등 문화체험데이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세대 공감 소통 네트워크
-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포럼

성주류화란?

- 사회정책을 성평등한 목표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 의 051) 330-3451-5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신청 안내

양성평등센터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의 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부산시 및 16개 구·군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기업 및 시민
- 교육비** 무료
- 교육인원** 최소 10명 이상
- 교육방법** 기관방문교육
- 교육내용** 기본과정, 특화과정, 심화과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개요

- 신청기간** 4월 ~ 10월
- 신청방법**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 제출
- 문 의** 051-330-3455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신청하러 가세요!

· 문 의 051) 330-3451-5

우리 SNS 친구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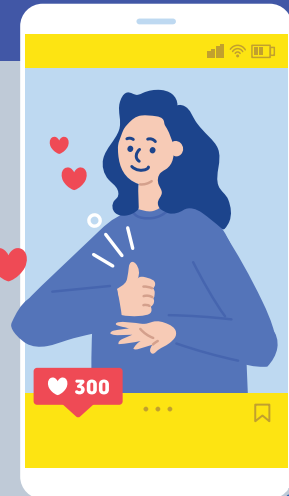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instagram.com/bgli_official/

 www.facebook.com/bgli01/

Like
it!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 '이젠 센터'

젠더범죄예방 사업실

- ◆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대응 전담창구 운영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긴급, 임대)
- ◆ 통합지원창구 운영 (자치경찰관 배치)
- ◆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방지·역량강화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 접수
- ◆ 피해자 통합지원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상담지원(법률, 수사, 의료 등)
 - 심리치유 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 ◆ 365일 24시간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 현장출동, 긴급구조
- ◆ 피해자 임시보호
- ◆ 기관 연계, 정보 제공 등

지원 및 신청문의 : Tel 051)1366 / 051)802-208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범전동 381)

